

목포 유달유원지 새단장... 휴식·감성공간 대변신

스카이워크 디자인 바꾸고 확장... 모래사장 일원 연안 정비 30리 해변맛길도 조성... 체류형 해양관광도시 한단계 도약

목포 유달유원지가 휴식과 감성 가득한 공간으로 새단장에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목포시는 11일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유달유원지 시설물 정비 현황을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개선점을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유달유원지에 포함된 대반동 스카이워크 디자인개선 및 확장사업과 대반동지구 연안 정비 사업,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유달유원지가 목포해상케이블카와 함께 목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목포유달유원지는 신안비치호텔에서 목포해양대학교 사이 약 300m 정도 구간의 모래사장 일대 거리를 일컫는다. 유달유원지는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명소 100선과 전남도의 감성을 자극하는 별방 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스카이워크

개선 및 확장공사 완료 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 시는 스카이워크가 짧고 단순하다는 의견이 있어 구조물을 입체화하고 목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탑재하는 등 랜드마크 및 해양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고민했다.

그 결과 총 2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스카이워크 구간에 직선부 31m를 확장해 총 85m의 장대함을 보여주고, 횡으로는 좌·우 22m씩 연장해 배넛 모양의 스카이워크를 완성했다.

최근 유달유원지의 모래사장 일원도 정비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대반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시작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70m 규모의 모래유실방지용블록(수중방파제)과 모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단블록 설치공사를 진행했다.

유달유원지는 목포시의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에도 포함돼 있다.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은 하단



목포 유달유원지에 있는 스카이워크가 지난 2022년 시작한 확장 공사를 마치고 11일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총 85m 길이의 스카이워크 전경. <목포시 제공>

평화광장에서 갖바위를 거쳐 남항과 삼학도를 지나 목포해양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총 12km를 5개 구간으로 나눠 도보여행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달유원지에는 해양경관이 뛰어난 대반동 해변

길과 연결되는 짧은 감성의 디자인 길, 포토존이 조성된다. 오는 5월말이면 디자인 조형물과 조화를 이룬 해변 산책로를 만날 수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아름다운 다도해 풍경과 낭

만적인 바다를 호젓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정비된 만큼 목포가 체류형 해양관광도시로 한걸음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현 기자 jbs@kwangju.co.kr

완도군, 축구장 136개 규모 조림사업... 17만 그루 식재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역할 공익·경제적 가치 있는 숲 확대

완도군이 올해 축구장(7140㎡) 136개 규모에 달하는 면적에서 조림사업을 펼친다.

완도군은 총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97ha에 지역 난대수종인 완도 호랑가시나무, 황칠나무, 동백나무 등 16만9000그루를 심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역 산림을 공익적·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숲으로 조성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조림사업은 황칠 특화림 조성(20ha), 철쭉 특화림 조성(10ha), 섬 지역 산림 가꾸기(15ha), 경제수 조림(37ha), 산림 재해 방지 조림(10ha) 등으로 추진한다.

완도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52억원 투입해 165ha 규모 황칠 특화림을 조성해왔다. 완도는 황칠 천연림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황칠 주산지로 꼽힌다.

올해는 노화, 군위, 신지, 고금 등의 20ha 산림에 황칠 특화림을 조성할 예정이다. 약산전 전망대광원에는 산철쭉 5만그루를 추가



완도군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14억원을 투입해 97ha 면적에 16만9000그루 나무를 심는다. 신우철(맨 오른쪽) 완도군수가 나무를 심고 있다. <완도군 제공>

로 심는다. 철쭉 특화림 조성 사업을 통해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산림 관광자원으로 키울 예정이다.

완도군은 연평균 기온 상승이 지속함에 따라 나무 식재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조림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조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

획이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탄소 흡수력이 높은 난대 수종을 확대 조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 다문화가정 고향 나들이 지원 확대

10~15세대... 22일까지 신청

신안군이 올해도 다문화가정 고향 나들이 지원 사업과 결혼이민자들이 친정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다문화가정 고향 나들이 지원사업은 2016년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다.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난해까지 총 61세대 245명이 고향을 다녀왔다.

올해부터 대상을 모든 결혼이민자로 확대한다. 총 4000만원을 들여 10~15세대 왕복 항공료와 버스요금, 여행자보험료를 온 가족에게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2일까지이며, 선정 기준은 모범가정으로서 지인을 소개해 결혼을 성사한 가정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신안군은 또 결혼이민자의 외로움과 실생활의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멘토

링 프로그램을 4년째 이어오고 있다. 제4기 멘토링 프로그램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3 회기씩 진행된다.

한국의 계절 말반찬 만들기와 우리 고장 알아가기, 실생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멘티) 10명과 봉사자(멘토) 10명을 15일까지 모집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다문화가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 5월까지 목포·영암지역 협력사 품질 향상 교육

13차례 교육 생산관리자 60명 참여

현대삼호중공업이 목포·영암지역 협력사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은 함께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사외협력사 품질지원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석 달간 진행되는 교육에는 목포·영암 협력회사 생산관리자 60여 명이 참석한다.

이 교육은 품질 향상을 통한 품질실폐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삼호중공업 소속 품질 전문가들이 교육 강사로 나선다.

선박 블록의 품질·정도 관리, 의장품 설치 문제점·대책 방안, 품질관리 기법 등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으로 교육한다.

교육 우수 수료자에게는 별도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이

사외협력사 품질지원 컨설팅 개강식

일자 | 2024년 3월 6일(수) 장소 |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대강당



현대삼호중공업이 오는 5월까지 석 달간 진행되는 '협력회사 품질지원 교육' 참가자들이 개강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수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교육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학무 현대삼호중공업 전무는 "협력회사의 품

질은 곧 모기업인 조선사의 원가경쟁력으로 직결된다"며 "지역 협력회사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택시처럼 탈 수 있는 '영암 천원 콜버스' 출발

대중교통 이용 많은 상호읍 운행

영암군이 택시처럼 탈 수 있는 1000원 '영암 콜버스' 운영을 개시했다.

영암군은 상호읍에서 민선 8기 대중교통 혁신의 하나로 '콜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정해진 노선 없이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콜버스는 택시처럼 편리하고 버스처럼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맞춤형 첨단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이 상호읍에 콜버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다. 대불국가산업단지과 각급 학교가 있는 상호읍은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낮 시간대에는 승객수요가 적어 노선과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암콜버스는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기존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낮 시간대에는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승객들의 이동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 1000원, 유아 및 초·중·고 학생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콜버스는 승객이 탑승하기 30분 전에 콜센터(1533-0777)나 스마트폰 앱 '서클'로 콜버스를 예약할 수 있다.

타는 곳과 내릴 곳을 정해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오후 7시 30분 이후에는 예약할 수 없다.

군은 상호읍 콜버스 운영으로 쌓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승객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수승희 영암군수는 "상호읍민을 포함한 영암군민들이 많이 이용해주면 좋겠다"면서 "좋은 점을 더 좋게 하고, 불편한 점은 고쳐서 영암에 꼭 맞는 혁신 이동 수단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경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영광경찰이 최근 사흘간 영광초교, 중앙초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사진〉을 펼쳤다.

이번 운동은 신학기 등굣길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안전자회, 시민 경찰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어깨띠와 현수막, 홍보물 등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행로 조성을 홍보했다.

박상석 영광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과 지역민들의 안전 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금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광=김정원 기자 kcw@kwangju.co.kr

진도군, 전국 최초 온라인 연계 공공앱 개발

언제 어디서든 행정 서비스 조회

진도군이 정부의 '지능형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온라인신청기반과 연계한 군민전용 '진도군 공공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진도군은 '진도군 공공앱'을 통해 각종 농수축산업 사업정보 제공과 농어가 방제약품 구매권 온라인 발급, 군 행사와 공연 정보 제공, 공공체육시설·숙박시설 온라인 예약, 개별 공시지가 결정통

지문 열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인재육성장학금·장수축하금과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도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진도군 공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곽주석 진도군 총무과 팀장은 "군민편의와 밀접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진도군 공공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